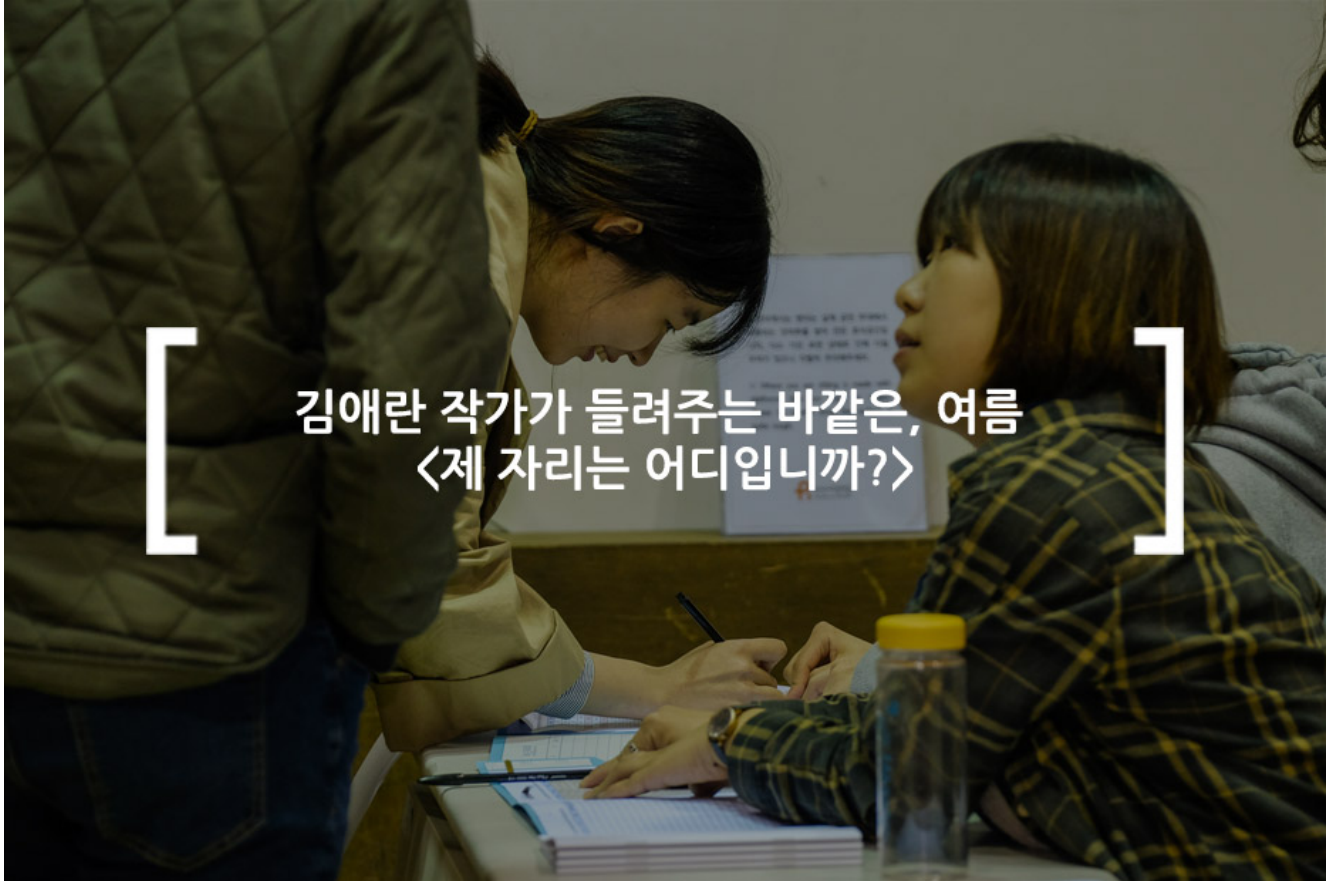


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 <□ □□□ □
□□□□?>



[김애란 작가가 들려주는 바깥은, 여름
<제 자리는 어디입니까?>]













<성탄특선 2006 여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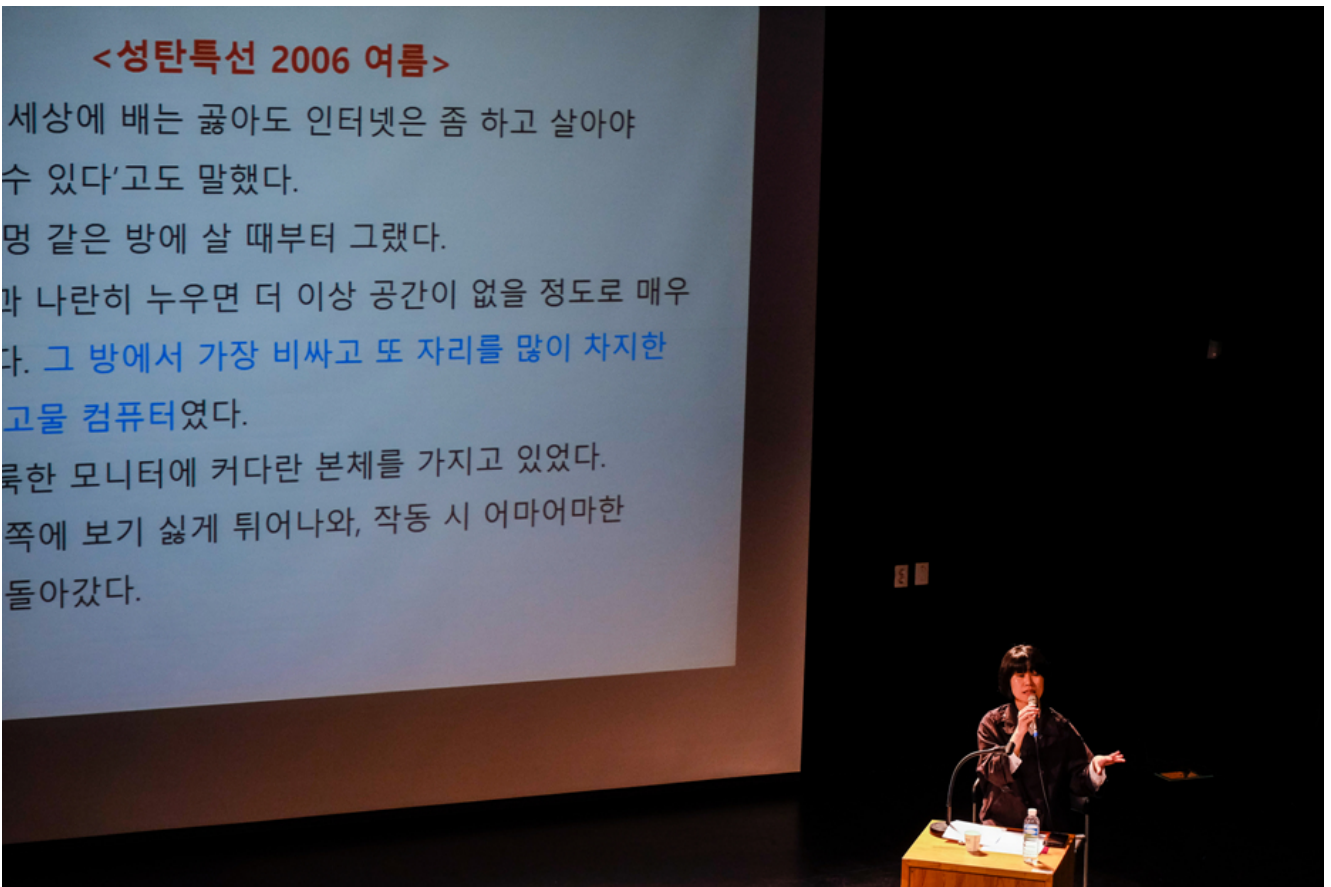
세상에 배는 굶아도 인터넷은 좀 하고 살아야
수 있다'고도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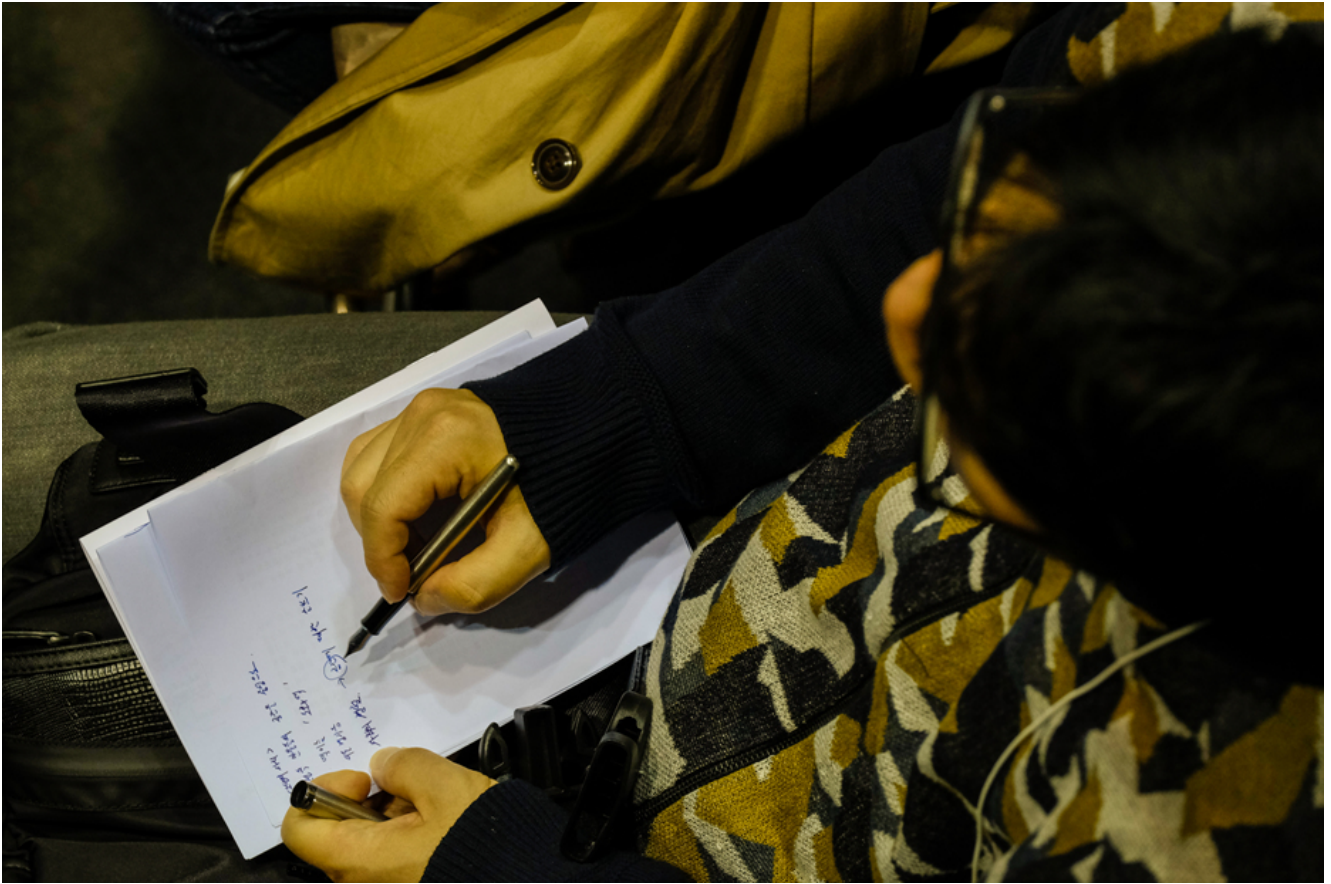
명 같은 방에 살 때부터 그랬다.

과 나란히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
다. 그 방에서 가장 비싸고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한
고물 컴퓨터였다.

특한 모니터에 커다란 본체를 가지고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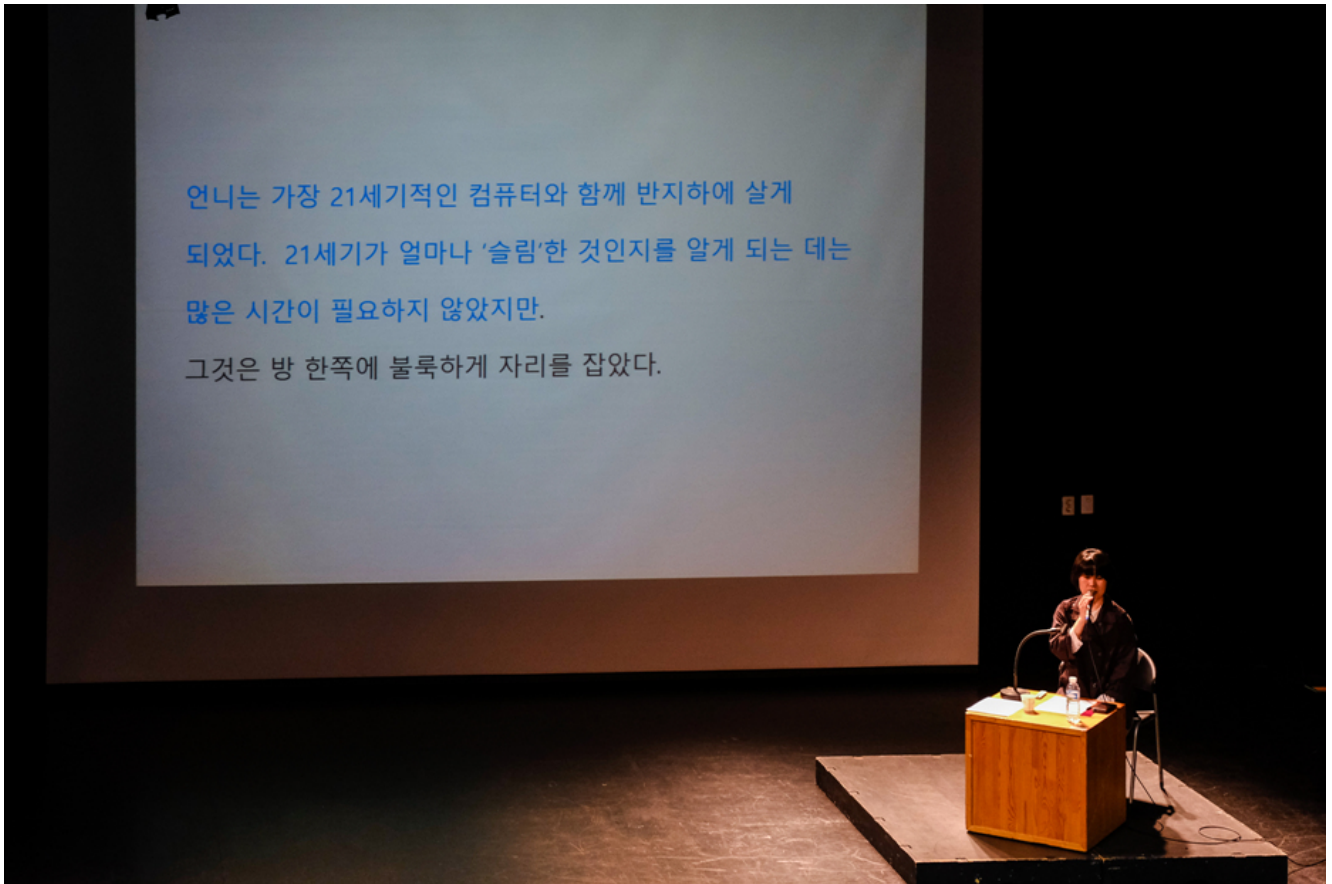
쪽에 보기 싫게 튀어나와, 작동 시 어마어마한
돌아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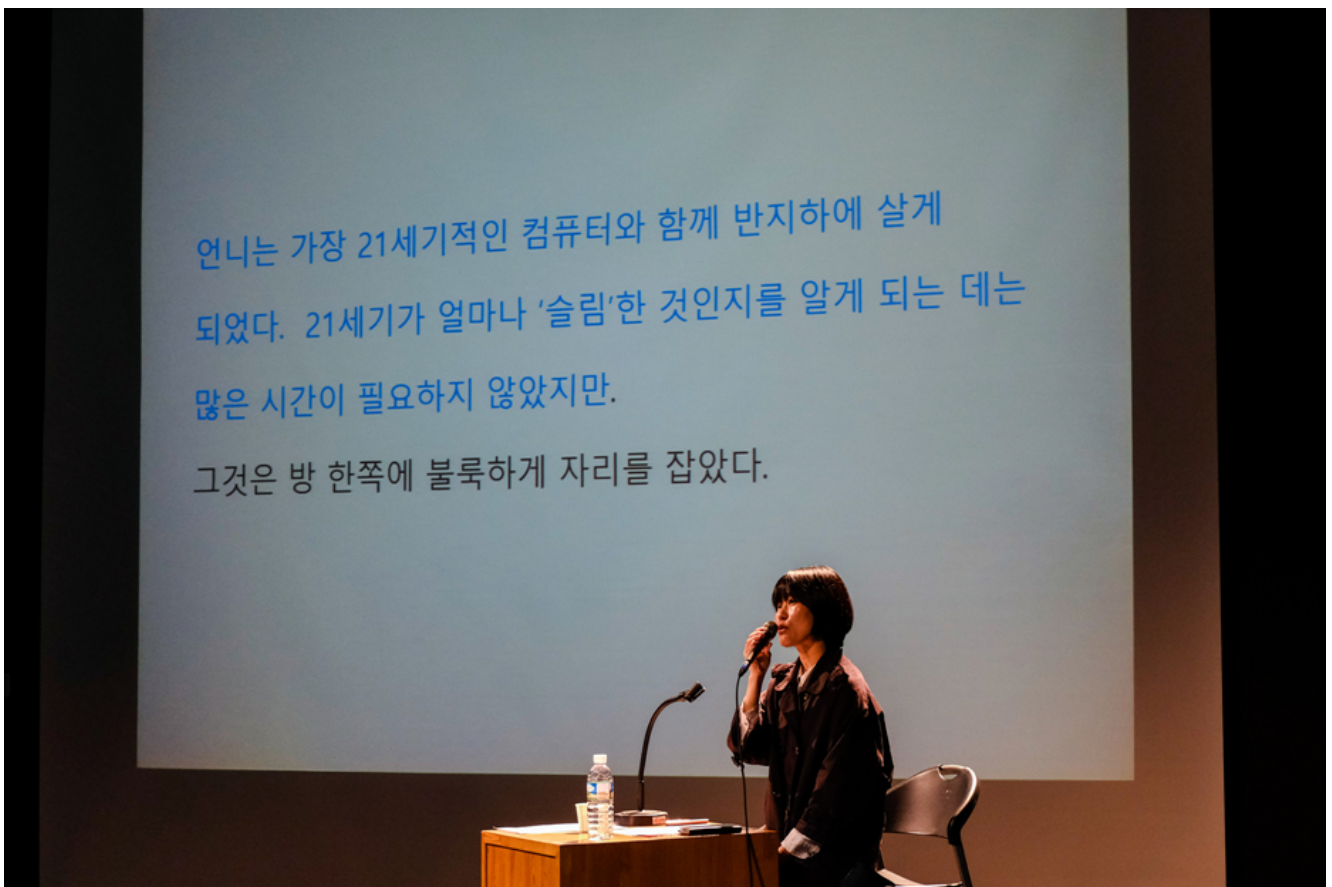




언니는 가장 21세기적인 컴퓨터와 함께 반지하에 살게
되었다. 21세기가 얼마나 '슬림'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
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.
그것은 방 한쪽에 불룩하게 자리를 잡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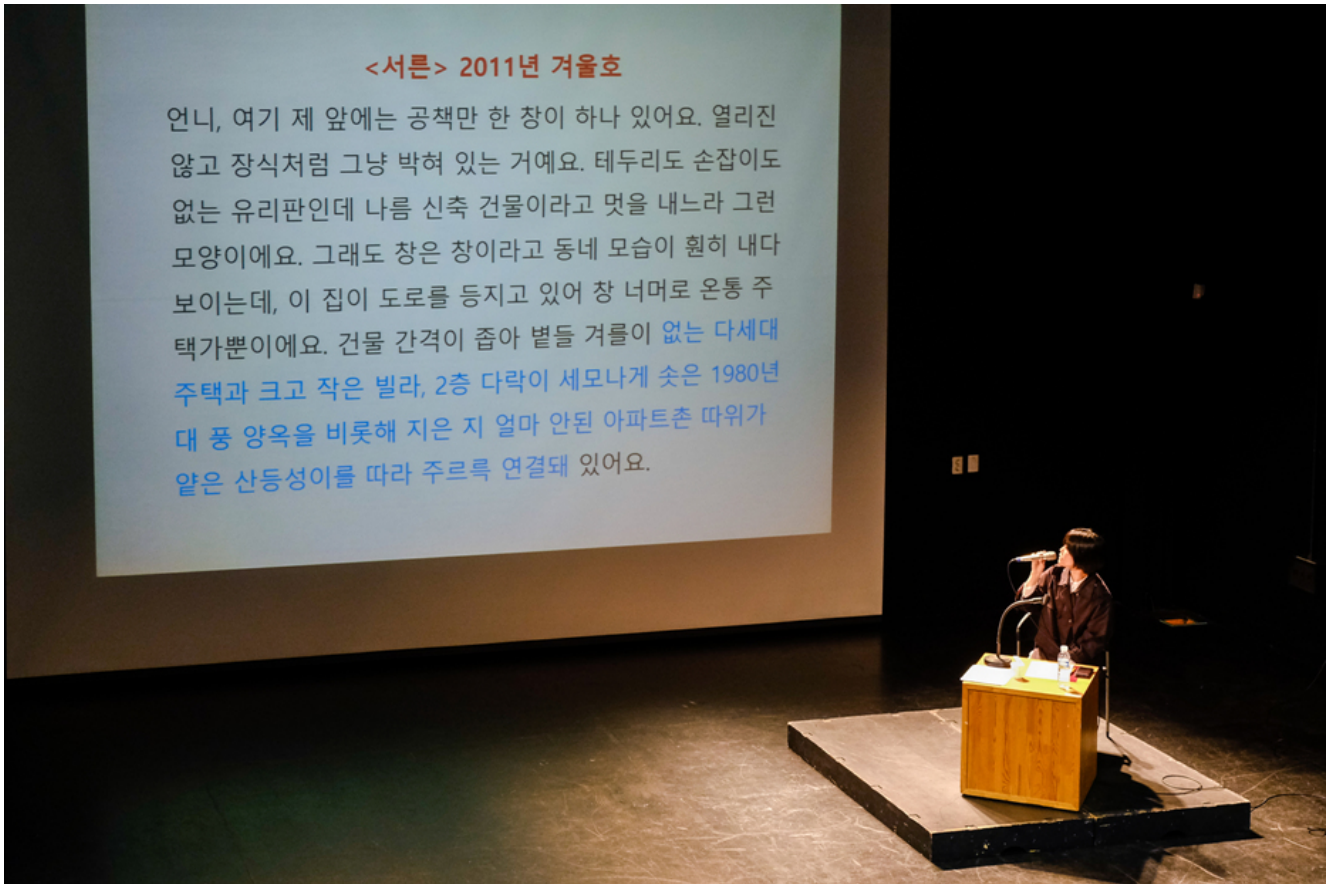
언니는 가장 21세기적인 컴퓨터와 함께 반지하에 살게
되었다. 21세기가 얼마나 '슬림'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
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.
그것은 방 한쪽에 불룩하게 자리를 잡았다.











<입동> 2014년 겨울호

이사 후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는 페인트와 접착제, 광택제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. '북유럽 스타일 가구' 또는 '스칸디나비아 패브릭'을 알아보다 가격을 보고 낙심한 아내가 나를 택한 자구책이었다. 아내에게는 **정착의 사실뿐 아니라 실감**이 필요한 듯했다. 쓸모와 필요로만 이뤄진 공간은 이제 물렸다는 듯, 못생긴 물건들과 사는 건 지쳤다는 듯. 아내는 물건에서 기능을 뺀 나머지를, 삶에서 생활을 뺀 나머지를 갖고 싶어 했다.

